

■광주경찰청 개청 준비 어떻게 돼가나

내달 전직원 인선 마무리

실무진 등 추가 투입 준비 박차
현 전남경찰청사서 7월1일 개청
12월까지 광산 소총동 신청사 이전

광주지방경찰청의 개청 추진 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하옥현)은 1일 각 기능별 실무진을 포함한 108명의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본격적인 개청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배치된 인력들은 각 기능별로 ▲인력·장비의 운영계획 수립 ▲신청사 배치 적정성 검토 ▲관계법령 검토·보완 작업 등을 벌이게 된다.

광주청은 또 오는 4월 말까지 광주청 근무 470명에 대한 전 직원 인사발령을 모두 마치고 현 전남청사로 입주한 뒤 7월 1일 개청식을 갖는다. 전남청은 현재 리모델링 중인 옛 서부경찰서로 이전하게 된다.

광주청은 현 전남청 자리에서 6개월여 동안 업무 수행을 한 뒤 12월에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신청사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광주청 시대를 열게 된다.

광주청 규모는 전남청과 같은 6개 과 3담당관이며, 인원은 5개 경찰서를 포함해 모두 2천800여명 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청은 농촌을 낀 전남청과 달리 도시 치안만을 담당하는 만큼 개청에 앞서 도시 치안에 걸맞은 어젠다(agenda) 개발에 착수했다.

또 광주가 평화·인권·문화 도시라는 점을 감안해 ▲도시 경찰 ▲평화·인권 경찰 ▲문화경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민 대상 슬로건 공모, 전문가 그룹의 자문 등도 계획하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개청과 동시에 완벽하게 업무수행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개청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건강검진 이상無’ 30대 남성 15% 2년만에 대사증후군 진단

2년 전 건강검진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던 30대 직장 남성의 14.8%가 2년여 만에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국내에서 대사증후군을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북삼성병원 산업의학과 유승호 교수팀은 2002년 직장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이 없었던 30대 직장인 4천779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 평균 2년1개월 만에 14.8%(708명)가 새로운 대사증후군 환자로 진단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역학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Annals of Epidemiology) 최근호에 게재됐다. 대사증후군은 고밀도콜레스테롤(HDL)의 혈중수치가 낮으면서 혈압, 혈당, 혈중 중성지방은 높고 복부비만인 경우를 말한다. 보통 이 중 3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代謝症候群·metabolic syndrome)=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여러 가지 성인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로 진단된다. 이 질환은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과 각 질환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사증후군은 지난 2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1998년 23.8%이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2001년에는 28%로 급속히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와왔다. 이는 장년층 이상에서 대사증후군 환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슬비의 노래
흐리고 한 두차례 비가 오겠다.

3월 2일
(음 1월 13일)
◇전국날씨

광주	흐리고 비	8~15℃
목포	흐리고 비	8~14℃
여수	흐리고 비	8~12℃
순천	흐리고 비	8~14℃
해남	흐리고 비	6~16℃
영광	흐리고 비	6~14℃
영암	흐리고 비	6~15℃
무안	흐리고 비	6~16℃
담양	흐리고 비	6~14℃
진안	흐리고 비	6~16℃
장흥	흐리고 비	7~15℃
강진	흐리고 비	7~13℃
고흥	흐리고 비	8~15℃
보성	흐리고 비	6~15℃
곡성	흐리고 비	8~15℃
구례	흐리고 비	6~15℃
영광	흐리고 비	8~15℃
영암	흐리고 비	8~15℃
무안	흐리고 비	8~15℃
담양	흐리고 비	8~15℃
진안	흐리고 비	8~15℃
장흥	흐리고 비	8~15℃
강진	흐리고 비	8~15℃
고흥	흐리고 비	8~15℃
보성	흐리고 비	8~15℃
곡성	흐리고 비	8~15℃
구례	흐리고 비	8~15℃
영광	흐리고 비	8~15℃
영암	흐리고 비	8~15℃
무안	흐리고 비	8~15℃
담양	흐리고 비	8~15℃
진안	흐리고 비	8~15℃
장흥	흐리고 비	8~15℃
강진	흐리고 비	8~15℃
고흥	흐리고 비	8~15℃
보성	흐리고 비	8~15℃
곡성	흐리고 비	8~15℃
구례	흐리고 비	8~15℃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남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1:04 썰물 < 06:30
여수 밀물 < 08:50 썰물 < 02:18

▲해돋이 07:02 ▲해질 18:28 ▲달돋이 16:52 ▲달질 06:1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토)	4(일)	5(월)	6(화)	7(수)	8(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8/17	8/11	6/10	-1/6	-3/7	-2/8

5·18 심사 업무 5개월째 중단

위원회 구성 지연 난항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결정을 위한 관련 여부 심사 업무가 5개월째 중단되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전원이 지난해 10월 사퇴한 뒤 아직 새 진용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5·18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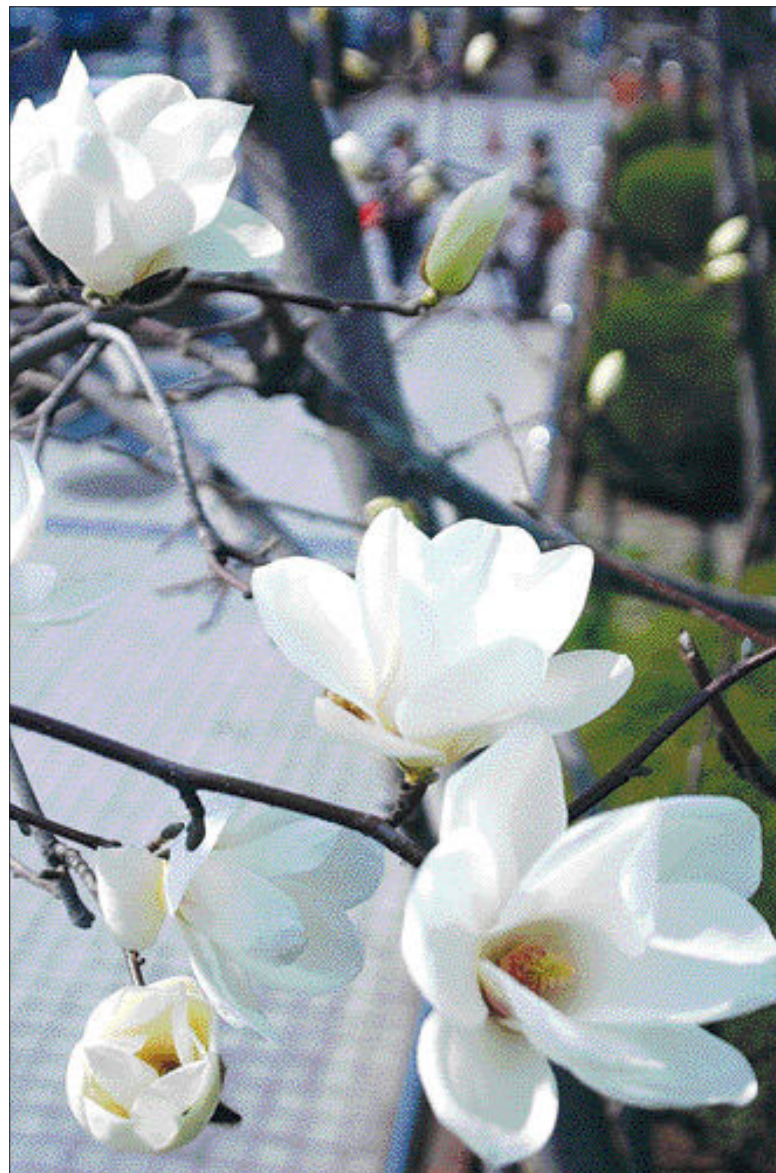
공자 관련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로 구성 지연에 따른 관련 심사가 전면 중단상태다.

시는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해 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의료계 등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으나 단 4명만 추천을 받는데 그쳤다. 최근에는 추천된 일부 위원이 신청자들의 이익에 부담을 느껴 다시 참여를 거부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추천불가 입장을 통보한 기관·단체들은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심사가 방해받는 경우가 생기는 마당에 위원회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심사분과위원회 재구성 등에 대해 논의를 하려던 5·18보상 심의위원회 회의가 관련 단체 회원들의 저지로 무산되기도 했다. 시는 2004년 제5차 보상 신청(527명)을 받아 심사를 진행중이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5천63명이 5·18 유공자로 인정돼 2천230억원이 지급됐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활짝 핀 목련꽃

1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17.2도로 완연한 봄날씨를 보였다. 이날 오후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 동부소방서 앞 등에 활짝 핀 목련꽃.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올해 교원 6,427명 더 늘린다

영양교사 2.4배 증가

2007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 정원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2.4배나 늘어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공립학교 학급 신·증설 등에 따라 교원 정원을 지난해 31만3천141명에서 올해 31만9천568명으로 6천427명(교과교원 3천587명, 비교과교원 2천840명) 늘리는 내용의 2007학년도 교원정원 확충 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초·중·고 교원은 전년에 비해 1만1천260명 증가했다.

교과교원 증원 규모를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 350명, 초등학교 1천653

명, 중등학교 1천506명, 특수학교 78명 등이다. 비교과 교원은 영양교사 2천408명, 상담교사 175명, 사서교사 127명, 치료교사 130명 등이고 지방직이던 영양사들을 지난해부터 영양교사로 전환한 영향으로 올해 국가직 영양교사가 대폭 증원된 것이 눈길을 끈다.

강경길 교원정책과장은 "저출산 등의 여파로 교과교원 정원은 줄고 복지와 관련된 비교과교원 정원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수도권 과밀학교 해소 등 특수 요인 때문에 정원 증가인원이 올해의 두 배나 됐다"고 설명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비교내신제 폐지나 축소” 고려대 2008년 입시부터

고려대는 2008학년도 입시부터 외국어과 과학교 등 특수목적과 학생들에 대해 적용되는 비교내신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고려대 입학처 관계자는 "비교내신제 적용을 의고는 어문계열로, 과학교는 이공계열로 한정하거나 이에 비교내신제를 폐지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그동안 정시모집에서 특목고 학생들이 수능성적과 연동해 산출된 점수를 내신점수 대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비교내신제를 운영해 왔다.

연환스

광주·전남 오늘 봄비

5~10mm 내릴 듯
주말·휴일에도 비

오늘 광주·전남지역에 한 두 차례 봄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2일 광주·전남지역은 흐리고 한 두 차례 비가 내릴 것"이라며 "강수량은 60~80%로 예상 강수량은 5~10mm안팎이 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8도

로 전남보다 높겠지만, 낮 최고기온은 비 때문에 12~16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해·남부 해상에 다소 짙은 안개가 끼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물결이 1~3m정도로 높을 것으로 예상돼 조업중이거나 항해중인 선박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말과 휴일인 3일과 4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 임양가정에 월 10만원 지원

광주시는 임양 가정에 매월 10만원의 지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총 1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가정형편이 어려워 점심값을 부담하지 못하는 관내 5천여명의 학생들에게 30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아동양육·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 가정 등에도 7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수련원등과 연계해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

교 2학년생까지 240여명을 선발해 방과후아카데미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만 12세이하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의 입양 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해 입양에 대한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12억원을 투입해 옛 국정원시설을 청소년 전용시설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개최,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업 등 청소년문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조이트레블 www.joytravel.com

여행사: 02-7917-7138
02-7917-8918
02-791-2991-3991
02-791-4311-5311
02-791-3991-4475

수리여행

1. 3박4일 제주 4도 여행 499,000
제주 4도 4박5일 여행 599,000
2. 3박4일 제주 4도 여행 499,000
제주 4도 4박5일 여행 599,000
3. 3박4일 제주 4도 여행 499,000
제주 4도 4박5일 여행 599,000
4. 3박4일 제주 4도 여행 499,000
제주 4도 4박5일 여행 599,000

여행상품 소개

1. 3박4일 제주 4도 여행 499,000
제주 4도 4박5일 여행 599,000
2. 3박4일 제주 4도 여행 499,000
제주 4도 4박5일 여행 599,000
3. 3박4일 제주 4도 여행 499,000
제주 4도 4박5일 여행 599,000
4. 3박4일 제주 4도 여행 499,000
제주 4도 4박5일 여행 599,000

여행상품 소개

1. 3박4일 제주 4도 여행 499,000
제주 4도 4박5일 여행 599,000
2. 3박4일 제주 4도 여행 499,000
제주 4도 4박5일 여행 599,000
3. 3박4일 제주 4도 여행 499,000
제주 4도 4박5일 여행 599,000
4. 3박4일 제주 4도 여행 499,000
제주 4도 4박5일 여행 599,000